

## 클락 완전정복

### 【여행준비】 환전, 로밍 외

환전: 작은 금액은 페소로 지불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KTV 등은 천페소로 지불하기에 몇 십장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달러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0:50 정도 환전을 추천합니다.

환전을 하실때는 시내 주거래 은행에서 하면 일부 할인을 받습니다.

전화로밍: 공항에서 하시면 되며, 일 1만원 정도면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 가서는 한국식당 등 큰 시설은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데이터 로밍을 안하셨을 경우는 가게에서 ID와 PW를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리핀처럼 통신상황이 안좋은곳이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충전기: 110v가 되는 충전기 준비

### 【여행가기】

#### ■ 인천공항→ 클락을 가는 비행편

- 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비용은 시기별로 천차만별이라 논하기가 어렵고,

비행시간: 저녁 8시, 9시 출발하여 클락에 12시, 1시 도착(비행시간 약 4시간)

※ 인천공항 → 마닐라 → 차량으로 클락 이동(막히지않을 때 2시간 소요)해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 ■ 호텔: 클락과 한인타운에 있는 호텔 두가지 형태로 크게 볼수 있습니다.

- 클락: 제니아호텔(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서 2015년 여름 오픈), 위더스호텔(카지노), 폰타나호텔(풀빌라&카지노) 외 다수가 있음

- 앙헬레스의 한인타운: 호도호텔, 르네상스호텔 등 다수가 있음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용한 르네상스호텔과 제니아호텔, 폰타나 풀빌라를 기준으로 하면 르네상스 호텔, 제니아호텔은 약 1박에 4~5만원(1인기준)이며, 폰타나 풀빌라는 12만원(1인기준)으로 숙박을 했습니다. 다만, 성수기와 비수기는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클락호텔과 한인타운호텔 이용시 차이점은 클락호텔의 경우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앙헬레스(한인타운 근처)에 있다 보니 이동시 차량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앙헬레스에 비해 시설이 좋고 안전한 것이 장점임

반면 앙헬레스 호텔의 경우는 걸어서 식사, 음주, KTV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 카지노: 대부분 클락에 위치. 앙헬레스에도 있다고는 하나 위험하고 시설이 좋지 않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위더스 카지노와 폰타나 카지노가 가장 좋으며, 이용방식은 100페소, 1000페소로 바꿔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돈을 따도 달러로는 잘 안 바꾸어 주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카지노 이용은 대부분 출국하는날 호텔 체크인후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12시간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까지 10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 ■ KTV

한인타운에는 수십개의 KTV가 있습니다. 거부기, 두꺼비, 텐프로, 블루피시 등이 있는데 거부기, 두꺼비는 같은 사장이라 인원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이 거의 비슷하니 쓴 곳을 찾으시면 되며, 대부분 사장이 한국사람이라 요금내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함

이용방식은 7시 정도에 인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좋지는 않고,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일반 단란주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은 약 200~250달러 정도하는데 가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주세트도 있으니 소맥을 좋아하시는 분은 가짜 양주보다는 소주세트가 나을듯합니다.

#### ■ 골프장

클락 여행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골프일 것입니다.  
주변 골프장은 동광썬밸리, 미모사, 코리아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이동거리도 클락이나 앙헬레스에서 10 ~ 20분내에 있어 골프를 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동광썬밸리는 산악형으로 주변 경관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주변에 화산이 터지며 만들어진 산과 용암이 흘러내려간 골짜기의 모습 등이 골프코스에서 볼수가 있어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합니다.  
다만, 산악형이라 조금 다른 평지형 골프장에 비해 어렵다고 합니다.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10 ~ 12만원(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정도로 그다지 싼편은 아닌듯합니다.

#### ■ 볼거리, 먹을거리

클락은 주로 골프관광을 위해서 가시는 곳이라 특별한 관광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워킹스트리트: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술집과 바가 즐비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바로는 Doll House로 워킹스트리트 초입에 있으며, 입장을 하시면 입장료로 맥주를 마시면서 아가씨들의 춤을 감상하는 곳이라는 정도로 표현을 해야할 듯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태국의 알카자쇼와 비슷하게 70~100명 정도 비키니차림의 여성들이 춤을 추는 것을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미는 10페소로 바뀌어서 돈을 뿌릴 경우 돈을 서로 가지려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 장면이 이국적이면서 씁쓸함을 자아내게 됩니다.

-수빅: 클락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를 가면 한국의 한진중공업이 진출해 있어 유명해진 수빅의 롱비치가 있습니다. 롱비치는 말그대로 해변가로 제트스키, 스노쿨링, 호핑투어 등을 할 수가 있는 해변입니다.

- 기타: SM몰, 노천온천 등이 있는데 SM몰의 경우는 이마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을거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먹는 음식은 전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장국부터 시작해서 면종류, 고기종류, 장어, 해산물 모두 있고 맛도 한국 사람들의 가게이다 보니 한국맛과 95% 이상 동일합니다. 그냥 한국식당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일 듯 합니다.

★ 알고가는 클락 여행

첫째, 클락 공항 입국시 한국에서 화장품 등 사치품을 사가면 공항에서 벌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락 공항에 도착해서 물건을 찾은 후 바로 케이스를 뜯어서 가지고 들어가곤 합니다.

둘째, 클락과 앙헬레스 여행시 가이드 및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이드와 차량비용으로 대략 1인당 200달러 정도가 책정되는데, 클락의 경우 툭툭이, 호텔택시 등이 많고 저렴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시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툭툭이는 150페소(2700원 정도), 호텔택시 3백페소(5400원 정도)입니다. 골프치러갈 때, 워킹스트리트갈 때, SM몰 갈 때 등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